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The Study of Perception and Current Status of Suicide Prevention in Won Buddhists

Eunsu Le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the presenting fundamental data under the understanding of present status and perception on the suicide prevention in the Won Buddhism, and under the analysis of the requiremants for a Won Buddhism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Contents] A Questionnaire about preception, level of common knowledge, competence, experience, intention and Won Buddhism dogma and experience, requirements for the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from 216 Won Buddhists has analyzed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percent data.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 necessity and rationalle of development of the Won Buddhism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has satisfied. Furthermore, a fundamental data for developing Won Buddhism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has provided from the Won Buddhists.

[Keywords] Suicide prevention, Life respect,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Suicide prevention program, Won-Buddhism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6A3A01109513).

* **Corresponding to** Eunsu Lee (HK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e of Mind Humanities, Wonkwang University)
E-mail : 2eunsu@gmail.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원불교 자살예방 프로그램 예비연구: 원불교 교도의 자살예방 인식 및 실태

이은수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원불교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이해하고 교육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원불교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자살예방 인식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살예방 인식, 자살예방 일반 상식, 자살예방 실천 유능감, 자살예방 관련 경험, 자살 시도 및 자살로부터의 안전감, 자살예방 실천 의향, 자살예방 교육 경험, 원불교 자살예방 프로그램 요구도에 관한 문항을 작성하여 원불교 출·재가 성인 교도 2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 자살예방 교육의 실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살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원불교 내 자살예방 인식과 현황에 관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원불교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자살예방,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 프로그램, 원불교

I. 서론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2003년 이후 우리나라는 2017년을 제외하고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률 2위 국가와 비교하여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OECD, 2023).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십만명당 25.2명으로 OECD 평균 10.7명에 비해 2배가 넘는다(Statistics Korea, 2023). 2023년 자살사망자(잠정치)는 13,770명으로 2022년 대비 6.7% 증가하였고, 2024년 1월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무려 42.45명이다(Munhwa News, 2024.5.4.). 매년 1만 3천명이 자살로 사망한다. 더욱이 자살이 10대, 20대, 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이며, 40대와 50대에도 2위를 차지한다(Statistics Korea, 2023)는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구성원이 자살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2004년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에 이르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 2012년 3월 3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자살예방과 관련된 국가적인 책임을 구체화하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법률 제정으로 일거에 자살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자살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을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또는 의학적 모델이 적합한가 복지차원의 접근이 적합한가의 논의 보다는 효과가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 시행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Song, 2020: 101). 자살사망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단체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와 이를 함께 보호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사회 곳곳의 구성원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종교는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19년 우리나라의 6개 종단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는 종교계 자살예방지침서를 발간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였다(Song, 2020: 110). 그러나 실제로 종교인의 자살에 대한 위험은 비종교인에 비하여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Cho, 2023: 38-41) 경각심을 갖고 자살예방 교육을 해야함을 시사한다. 원불교의 경우, 과거 인류구원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타적 자살을 구상하였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비록 목적이 이타적이라 하여도 자살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결코 예찬하지 않았다(Ko & Han, 2011: 89)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살은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자살에 대해 고민하는 자살사고, 자살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자살계획, 자살실행 등으로 나타난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계마다 개입, 그리고 자살사고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원불교에서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현재 원불교 교단 내 자살예방 인식과 현황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불교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 현황과 교육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원불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도구

현재 원불교 교단 내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Roh, 2022; Park & Park, 2020; Paik et al, 2014)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총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범주는 자살에 대한 지식과 태도 등 자살과 자살예방 인식에 관한 것으로 자살예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자살에 대한 태도와 숙지해야 할 지식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범주는 자살예방 실천 행동 준비도와 유능감에 대한 것으로, 실제 자살예방 위험자를 목격했을 시 도움 행동을 할 수 있는 실천 유능감과 준비도가 있는지에 관한 것과 과거 관련된 경험의 유무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범주는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로 자살예방에 실천 의향과 자살예방 교육 참여의향 및 관련 내용에 관한 것이다.

제작된 설문지는 출가 교도 3인, 재가 교도 4인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 질문의 문장과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였다.

<표 1> 설문 구성

<Table 1> Content of Questionnaire

주제	구분	문항 수
자살 및 자살예방 인식	자살예방 인식 실태	4문항
	자살예방 일반 지식	6문항
	자살 예방 실천 유능감	6문항
자살예방 경험	자살예방 관련 경험	4문항
	자살 시도 및 자살로부터 안전감	2문항
자살예방 교육 요구	자살예방 실천 의향	2문항
	자살예방 교육 경험	2문항
	원불교 자살예방 프로그램 요구도	3문항
전체		29문항

어려운 단어는 평이한 표현으로 수정하고 상담심리전문가 1인 및 사회조사분석가 1인을 통하여 적절성을 검토받아 최종 수정하고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일반적 배경과 교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교도 정보 질문을 포함하고, 구성된 세 가지 범주에 따라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및 대상

완성된 최종 설문지는 원불교 공식 홈페이지 및 개별 교당 게시판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배포되었다. 원불교 출가 및 재가 성인 교도를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은 후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216명의 설문 응답 자료가 수집되었다. 216명의 응답자가 작성한 설문지 216부가 모두 성실히 작성되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 대상 216명의 일반적 배경은 <표 2>, 원불교 교도 정보 구분은 <표 3>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2> 연구 조사 응답자 배경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구분	항목	빈도(N)	비율(%)
성별	남	117	54.17
	여	99	45.83
연령	20대	18	8.33
	30대	49	22.69
	40대	63	29.63
	50대	45	20.83
	60대	32	14.81
	70대 이상	8	3.70
학력	무학	1	0.46
	초졸	1	0.46
	중졸	3	1.39
	고졸	32	14.81
	학사	86	39.81
	석사	70	32.41
	박사	23	10.65

<표 2> 연구 조사 응답자 배경 (계속)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continued)

구분	항목	빈도(N)	비율(%)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70	32.4
	경기도	44	20.4
	부산광역시	22	10.2
	전라도	44	20.4
	경상도	10	4.6
	대전광역시	6	2.8
	충청도	5	2.3
	강원도	3	1.4
	광주광역시	2	0.9
	세종특별시	2	0.9
	대구광역시	2	0.9
	기타(울산, 인천, 해외)	6	2.8
전체		216명	100%

<표 3> 연구 조사 응답자 원불교 교도 구분

<Table 3> Hierarchy of Survey Participants in the Won Buddhism

구분	항목	빈도(N)	비율(%)
교도구분	출가교도	62	28.7
	재가교도	154	71.3
출가교도	1급교무	10	4.63
	2급교무	9	4.17
	3급교무	7	3.24
	4급교무	24	11.11
	5급교무	3	1.39
	예비교무	9	4.17
재가교도	청년 성인교도	30	13.89
	일반 성인교도	90	41.69
	법호인 성인교도	30	13.89
	법사 성인교도	4	1.85
전체		216명	100%

Ⅲ. 연구결과

1. 자살 및 자살예방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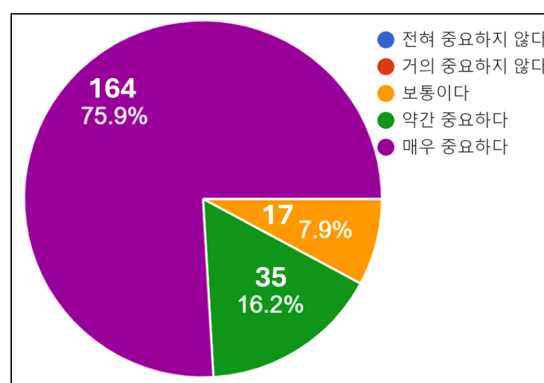
1) 자살예방 인식 실태

<표 4>와 같이, 자살예방에 관한 인식을 위한 질문에서 자살예방의 필요성에는 96.6%의 높은 비율로 대부분이 동의한다. 종교가 관여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질문에도 92.1%가 동의하고 있으나, 자신과 관련 있는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84.3%로 줄어들었다.

<표 4> 자살예방 인식

<Table 4> Participant's Perception on the Suicide Prevention

문항	응답	N(%)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213(96.6)
자살이 귀한 자신과도 관련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182(84.3)
자살이 종교가 관여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199(92.1)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원불교 교법과 정신에 근거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하다	164(75.9)
	약간 중요하다	35(16.2)
	보통이다	17(7.9)
	거의 중요하지 않다	0(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전체	216명(100%)	



[그림 1]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원불교 교법과 정신에 근거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igure 1] Is Suicide Prevention and Respect for Life has Large Portion in the Won Buddhism Dogma?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원불교 교법과 정신에 근거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으며, 92.1%가 매우 중요하거나 약간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9%였다. [그림 1]과 같이, 응답자 대부분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가치가 원불교 교법에 근거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자살예방 일반 지식

자살예방에 관한 일반 지식은 <표 5>와 같이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자살에 관한 일반 상식에 관해서 3문항(A,C,D)은 80% 이상의 정답율을 보였으나 3문항은 그렇지 않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98.1%의 정답율을 보였다. 이어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막을 수 없다.’ 문항은 92.9%의 정답율, ‘자살하려는 사람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한다.’ 80.1%의 정답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응답자들 자살예방이 필요하고 실제 효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자살예방 일반 지식

<Table 5> Participant's Level of Common Knowledge on the Suicide Prevention

	문항	정답 응답	N(%)
A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막을 수 없다.	아니다	179(82.9)
B	정말 자살할 사람은 남에게 자살 의도를 밝히지 않으며 자살은 특징적인 징후 없이 갑자기 일어난다.	아니다	55(25.5)
C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	212(98.1)
D	자살하려는 사람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한다.	아니다	173(80.1)
E	자살의 위험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살을 부추기는 것이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아니다	142(65.7)
F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밀을 약속하면서 마음을 이끌어 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다	61(28.2)

그러나 자살을 예방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묻는 문항(B,E,F)에서는 정답 응답율이 낮아졌다. ‘정말 자살할 사람은 남에게 자살 의도를 밝히지 않으며 자살은 특징적인 징후 없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문항에 대하여 25.5%의 정답율로 가장 낮았고, 이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밀을 약속하면서 마음을 이끌어 내는 것은 좋지 않다.’가 28.82%의 정답율에 불과하였다. 또한 ‘자살의 위험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

살을 부추기는 것이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문항에 대해서는 65.7%의 정답율로 나타났다.

아래 <표 6>에서 문항 A에 대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20대와 30대에서는 자살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에 따라 일정 경향성은 없었다. 그러나 교도 구분에서 보면, 자살을 ‘막을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 재가 법사와

<표 6> 문항 A
<Table 6> Question A

A.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막을 수 없다.		그렇다	아니다
연령	20대	100.0%	0.0%
	30대	93.9%	6.1%
	40대	25.0%	75.0%
	50대	35.6%	64.4%
	60대	50.0%	50.0%
	70대이상	25.0%	75.0%
최종학력	무학	0.0%	100.0%
	초졸	0.0%	100.0%
	중졸	33.3%	66.7%
	고졸	37.5%	62.5%
	학사	29.1%	70.9%
	석사	20.0%	80.0%
	박사	13.0%	87.0%
재가	청년 교도	43.3%	56.7%
	일반 교도	27.8%	72.2%
	범호인	30.0%	70.0%
	법사	0.0%	100.0%
출가	예비교무	11.1%	88.9%
	5급교무	33.3%	66.7%
	4급교무	25.0%	75.0%
	3급교무	0.0%	100.0%
	2급교무	0.0%	100.0%
	1급교무	0.0%	100.0%

출가 1,2,3급 교무는 100% ‘아니다’라고 답변하여, 자살 예방 가능성과 이에 대한 확신을 반영하는 응답을 보였다.

아래 <표 7>과 같이, 문항 D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한다’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답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정답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 이해, 나아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정답율은 학력 보다는 연령 증가가 상관이 있었다.

<표 7> 문항 D
<Table 7> Question D

D. 자살하려는 사람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한다.			
		그렇다	아니다
연령	20대	44.4%	55.6%
	30대	22.4%	77.6%
	40대	18.8%	81.3%
	50대	11.1%	88.9%
	60대	21.9%	78.1%
	70대이상	0.0%	100.0%
최종학력	무학	0.0%	100.0%
	초졸	0.0%	100.0%
	중졸	0.0%	100.0%
	고졸	25.0%	75.0%
	학사	22.1%	77.9%
	석사	17.1%	82.9%
	박사	17.4%	82.6%

반면 아래 <표 8>과 같이 문항 E에 대한 정답율을 이상값으로 나타난 중졸이하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학력의 증가에 따라 정답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문항 D와 비교하였을 때, 사람에 대한 이해에는 연령이, 그 기술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8> 문항 E
<Table 8> Question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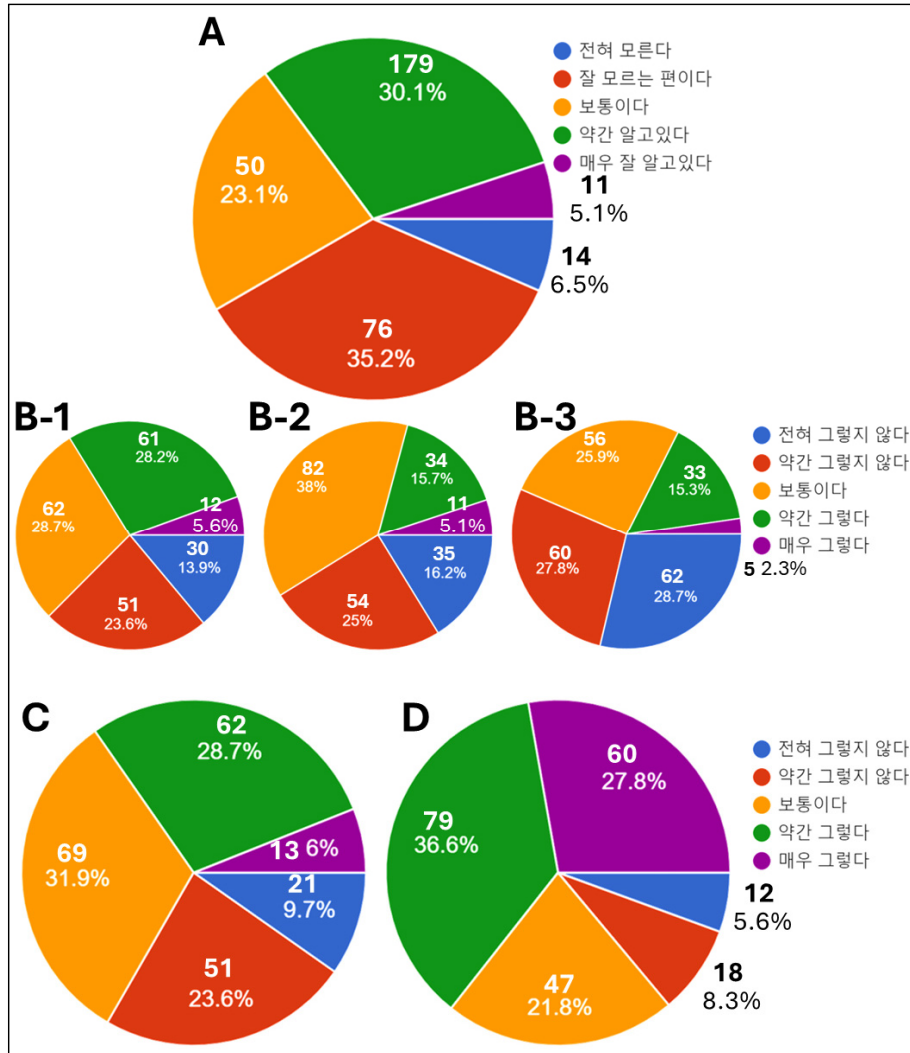
E. 자살의 위험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살을 부추기는 것이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	아니다
연령	20대	27.8%	72.2%
	30대	38.8%	61.2%
	40대	25.0%	75.0%
	50대	35.6%	64.4%
	60대	50.0%	50.0%
	70대이상	25.0%	75.0%
최종학력	무학	0.0%	100.0%
	초졸	100.0%	0.0%
	중졸	100.0%	0.0%
	고졸	46.9%	53.1%
	학사	45.3%	54.7%
	석사	20.0%	80.0%
	박사	8.7%	91.3%

3) 자살예방 실천 유능감

자살예방 실천 유능감에 대한 문항은 아래 <표 9>와 같이 구성되었다. 자살예방에 대한 지식 정도와 자살위험 대상을 목격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과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스스로 생각하는 실천 유능감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9> 자살예방 실천 유능감
<Table 9> Participant's Competence on the Suicide Prevention: Questionnaire

	문항
A	귀하는 자살예방 관련 내용을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1	‘나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대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이 있다.’
B-2	‘나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에게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B-3	‘나는 자살 시도를 했거나 자살 시도를 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지식이나 훈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
C	‘나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사람을 편하게 대할 수 있다.’
D	‘나는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그림 2] 자살예방 실천 유능감 결과
[Figure 2] Participant's Competence on the Suicide Prevention: Results

자살예방 실천 유능감 문항에 대한 상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자살예방 관련 내용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불과하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였으며, ‘잘 모르는 편이다’ (35.2%), ‘전혀 모른다’ (6.5%)의 응답으로 나타났다. A,B(1-3) 4개 문항에서 실천 유능감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2.3~6.5%로, 자살예방 도움 실천에서 자신감을 나타내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실제 자살예방 도움 행동에 이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식, 실천할 수 있는 유능감,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 의향이 모두 필요하

므로, 자살예방 실천 유능감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편, ‘나는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8%에 이르는데, 이는 후술되는 자살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26.4%)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2. 자살예방 관련 경험

1) 자살예방 관련 경험

자살예방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경험 유무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자살사망을 목격한 경우는 52.8%로 과반수였으며, 자살문제를 가진 사람을 목격한 경험에 대한 응답도 60.2%에 이른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살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경험은 84.3%에 이르며,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살 유가족의 도움 요청을 받은 경험은 91.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살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살예방 도움 제공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을 경우 종교인으로서 의미있는 선행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10> 자살예방 관련 경험
<Table 10> Participant's Experience of the Suicide Prevention

문항	그렇다 N(%)	아니다 N(%)
지금까지 귀하의 주변에서 자살로 사망한 경우가 있나요?	114(52.8)	102(47.2)
지금까지 자살 문제(자살생각, 자살행동)를 가진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130(60.2)	86(39.8)
자살문제(자살생각, 자살행동, 자살완료)를 가진 사람이 귀하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182(84.3)	34(15.7)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살 유가족이 귀하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197(91.2)	19(8.8)
전체	216명(100%)	

2) 자살로부터 안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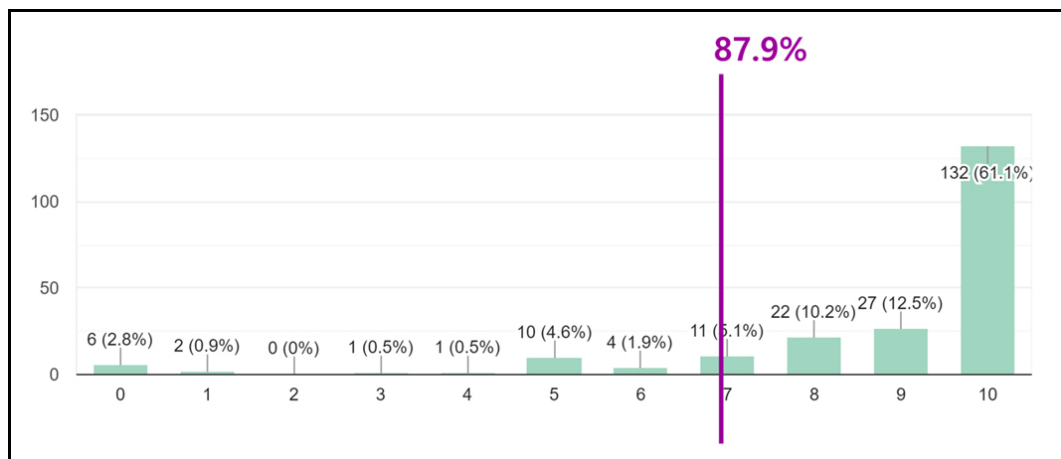
자살사망자와 자살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목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만큼 자신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하다. 응답자 본인의 자살에 관한 경험과 안전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11>과 같았다. 결과를 보면 자살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48.1%이고, 짧게 지나가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39.8%이다. 자살에 대한 막연한 계획은 세운 적이

있다는 응답은 5.6%,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정말로 자살하고 싶었다는 응답은 0.9%였다. 그러나 자살을 실제 시도한 비율은 5.5%에 이르는 응답이 나타났다.

<표 11> 자살로부터의 안전감
<Table 11> Participant's Sense of Security

문항	응답	N	%
귀하는 과거에 자살에 대해 생각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시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전혀 하지 않았다.	104	48.1
	자살에 대해 짧게 지나가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86	39.8
	자살에 대한 막연한 계획을 세웠지만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	12	5.6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말로 자살하고 싶었다.	2	0.9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고 싶지는 않았다.	7	3.2
	자살을 시도했으며 정말 죽기를 바랐다.	5	2.3
전체	216명(100%)		

이어지는 문항으로 ‘귀하는 현재 자살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요?’라고 10점 척도 질문을 하였는데,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자살에 대한 경험 문항과 관련 지어 볼 때, 자살에 대한 어려움이 전혀 없었나, 짧게 지나가는 생각은 했으나 자살에 대한 계획이나 실행은 없었다고 답한 87.9%는 자살로부터의 안전감에 대해 대략 7점 이상으로 응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점 이하로 답변한 비율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자살로부터의 안전감
[Figure 3] Participant's Sense of Security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자살로부터의 안전감에 대해 <표 12>에서처럼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선행연구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살로부터의 안전감이 낮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자살로부터의 안전감
<Table 12> Participant's Sense of Security

6. 귀하는 현재 자살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요?												
		0	1	2	3	4	5	6	7	8	9	10
연령	20대	5.6%	5.6%	0.0%	5.6%	0.0%	0.0%	5.6%	0.0%	5.6%	22.2%	50.0%
	30대	2.0%	0.0%	0.0%	0.0%	0.0%	10.2%	2.0%	2.0%	12.2%	16.3%	55.1%
	40대	0.0%	0.0%	0.0%	0.0%	1.6%	3.1%	1.6%	6.3%	14.1%	12.5%	60.9%
	50대	0.0%	0.0%	0.0%	0.0%	0.0%	4.4%	2.2%	6.7%	13.3%	8.9%	64.4%
	60대	9.4%	3.1%	0.0%	0.0%	0.0%	3.1%	0.0%	9.4%	0.0%	6.3%	68.8%
	70대이상	12.5%	0.0%	0.0%	0.0%	0.0%	0.0%	0.0%	0.0%	0.0%	12.5%	75.0%
최종 학력	무학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초졸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중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고졸	3.1%	0.0%	0.0%	3.1%	0.0%	12.5%	0.0%	3.1%	3.1%	15.6%	59.4%
	학사	5.8%	2.3%	0.0%	0.0%	0.0%	1.2%	3.5%	4.7%	10.5%	14.0%	58.1%
	석사	0.0%	0.0%	0.0%	0.0%	1.4%	5.7%	1.4%	4.3%	12.9%	7.1%	67.1%
	박사	0.0%	0.0%	0.0%	0.0%	0.0%	4.3%	0.0%	8.7%	13.0%	21.7%	52.2%

3. 자살예방 교육 요구

1) 자살예방 실천 의향

다음은 자살예방에 대하여 실제 참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표 13>과 같이 96.3%가 참여의향이 있음을 나타냈으나, 3.7%는 참여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은 자살예방 실천 참여 의향 96.3%에 비하여 다소 낮아진 비율로, 자살예방에 동참하고자 하나 실제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8.8%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자살예방 참여 의향
<Table 13> Participant's Intention to Prevention a Suic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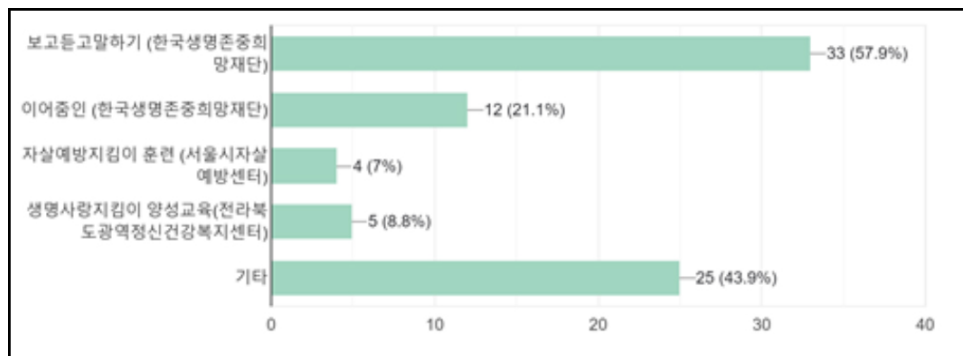
문항	예 N(%)	아니오 N(%)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자살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십니까?	208(96.3)	8(3.7)
원불교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십니까?	189(87.5)	27(12.5)
전체	216명(100%)	

2) 자살예방 교육 경험

자살예방 교육 경험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표 14>와 같이 26.4%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림 4]와 같다.

<표 14> 자살예방 교육 경험
<Table 14> Participant's Experience of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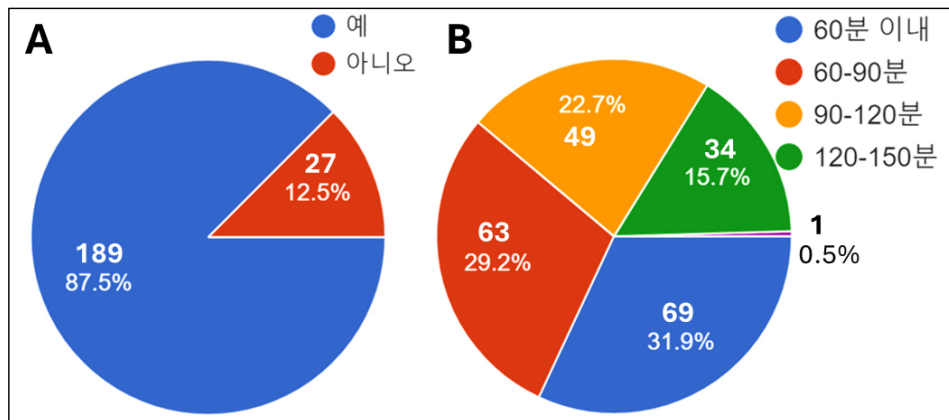
문항	그렇다 N(%)	아니다 N(%)
귀하는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57(26.4)	159(73.6)
전체	216명(100%)	



[그림 4] 자살예방 프로그램 참여 경험
[Figure 4] Participant's Experience of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3) 자살예방 프로그램 요구

원불교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87.5%가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 하였고, 교육 프로그램의 적정 시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응답하였다. 60분 이내가 31.9%, 이어서 60-90분이 29.2%로 나타났다.



[그림 5] 자살예방 교육 요구

[Figure 5] Participant's Requirements for the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원불교 자살예방에 관한 교리적 근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원불교 교리적 근거에 대한 응답 워드클라우드

[Figure 6] Word Cloud of Won Buddhism Dogma on the Prevention of Suicide

원불교 생사관은 불교의 윤회관을 수용하면서 일원상의 진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Kim, 2011: 63). 자살예방에 관한 교리적 근거로 ‘인과(인과보응)’, ‘불생불멸’을 다수가 응답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다른 다수의 응답 ‘사은(四恩)’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를 뜻하는 것으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원불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관한 선행연구(Ko & Han, 2011; Choi, 2020)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원불교 경전 중 자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부분은 ‘정신수양(Wonbulgyo Jeonghwasa, 1977: 46-47)’인 만큼, 정신수양의 측면에서 자살예방을 이해해야 한다는 응답도 의미있게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원불교 출가·재가 교도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인식 및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인식 현황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자살 및 자살예방 인식, 자살예방 관련 경험, 자살예방 교육 요구로 설문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응답 조사 결과를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원불교 교도 대다수는 자살예방의 필요와 가치를 이해하고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비율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자살예방의 필요와 중요성에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자살예방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향에도 매우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으나 이를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높은 비율로 자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목격하고 직접 도움을 요청받기도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자살예방을 위한 행동을 적절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능성에는 매우 낮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이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예방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도 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살 위험군을 목격하고 직접 개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이거나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실천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12.9%에 그쳤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의향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자살예방과 관련한 일반적인 지식에서 자살예방의 필요와 효과에 대해서는 대강 이해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 상식에 관한 질문에서 정답율이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살펴보면, 자살 예방의 필요성이 있고 실효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었으나 자살 예방의 징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살과 관련한 일반적 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6문항에 대한 평균 정답율은 72.6%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6문항에 대하여 모든 문항에 정답을 맞춘 비율이 0%라는 것은 자살예방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역설한다. 자살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오히려 자살에 이르게 한다는 불안감이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높은 오답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자살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과 같이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용어를 분명하게 사용하여 대화를 하는 것이 자살이라는 주제를 꺼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지식과 학식, 영적 능력과 관계없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자살로부터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없으므로, 종교 내에서도 생명 존중과 자살예방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살 생각에 보호요인임과 동시에 위험요인(Cho, 2023: 38-41)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신앙과 수행 정도, 교리에 대한 해석, 사후세계 해석 등에 따라 자살로부터의 안전감이 달라지는 것이다.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자살로부터 안전하다는 논의에는 종교가 주는 소속감이 자살의 위험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반면, 이미 삶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도 있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자살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한 자살위험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므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살시도 행동을 포함하여 자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던 사람은 11.2%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 자신이 자살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10점 척도에서 5점 이하로 답변한 비율이 8.3%에 이른다. 이는 종교 내에서도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자신을 놓고 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다. 자살예방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머무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상기할 때,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 내에서의 자살예방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원불교 교도를 대상으로 실행되어 자살예방의 인식과 현황에 대한 비종교인과 종교인, 종교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교리적 근거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대강 파악할 수는 있었으나 심층적 이해를 하기에는 제한적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본 연구를 통한 원불교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자살예방을 위한 교

육은 일반인, 게이트키퍼 자살예방 전문가 등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내용과 구성이 맞추어져야 하고, 우리나라 프로그램에는 한국과 한국인의 자살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Lim & Oh, 2012: 352-353). 마찬가지로 원불교 자살예방 프로그램에는 자살예방으로서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우선 포함되고, 원불교 교도와 교리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보편적 자살예방 교육에는 기본적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자살예방에 관한 정보와 지식 제공이 선행되고, 이어 도움을 제공하는 기술에 대하여 이를 습득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후속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결과에 나온 바와 같이 종교인으로서 인간의 생사 문제를 목격하고 도움 요청을 받거나 도움 제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원불교 교리에 바탕하여 자살 유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편, 원불교의 상시 마음공부와 자살에 관한 위기 시 개입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증 결과를 통하여 원불교 교도의 자살예방의 인식과 현황을 이해하고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자살예방 교육의 실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살예방 교육 중요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원불교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이후 원불교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이를 통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Primary Sources]

- 원불교 정화사 (1977).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Wonbulgyo Jeonghwasa (1977). *The Scriptures of Won Buddhism*. Iksan: Won-Buddhism Publication.

[Secondary Sources]

- Cho, G. D. (2023). The Effect of Religion on Suicidal Ideation: Is the “Belief System of Religion” a Protective Factor or a Risk Factor?. *Asian Journal of Religion and Society*, 11(2), 1-54.
- Choi, Y. H. (2020). Won Buddhism Life Respect and Suicide Prevention. *Journal of Religious Cultural Studies*, 17(1), 65-90.

- Kim, D. G. (2011). The View of Death and the Education on Death in Won-Buddhism.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24, 37-66.
- Ko, S. Y. & Han, N. C. (2011). Anti-Suicidal Perspective of Won-Buddhism.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46, 83-105.
- Lim, S. W. & Oh, K. S. (2012). Suicide Prevention by Education.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55(4), 349-355.
- Park, J. S. & Park, J. H. (2022).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Gatekeeper Behavior Scale.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9(2), 170-104.
- Paik, J. W., Jo, S. J., Lee, S. J., Ong, J. Y., & Park, J. I. (2014). The Effect of Korean Standardized Suicide Prevention Program on Intervention by Gatekeeper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3(6), 358-363.
- Roh, J. G. (2022). *A Systemic Causal Analysis on the Outcomes of Military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Training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Song, O. S. (2020). Overview of Suicide Prevention Act and Religious Practice. *Journal of Religious Cultural Studies*, 17(1), 91-116.
- Munhwa News (2024.5.4.). Suicide rate still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fostering a sense of community. Retrieved 2024.5.4. from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6780>.
- OECD (2023.2.2.). Suicide rates. Retrieved 2023.10.10. from <https://doi.org/10.1787/a82f3459-en>.
- Statistics Korea (2022.2.2.). Annual report on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Retrieved 2023.10.1.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2.